

## 성매매가 없는 인간다운 사회를 향한 유영님의 끝없는 도전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적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되는 성매매 현상은 우리 시대만의 독특한 문제는 아니다. 성매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오는 현상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여 성매매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묵인하거나 필요악의 하나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문화에 대한 강한 도전이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었다. 성매매 없는 세상은 나의 '성매매 안하기'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운동이 바로 그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한소리회>가 지난해 9월 19일 선포식을 갖고 '성매매 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성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것을 잠재적 성 구매자인 남성들에게 성을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이 운동에 온 국민이 나서게 하고자 준비되었다. 이 운동을 이끌어 온 <한소리회> 공동대표

인 유영님(51) 씨를 만나 보았다.

성매매가 과연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살짝 감추며 유 대표에게 “보통 필요악 이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성구매자와 제3자의 시각입니다. 성매매 여성 즉 피해자의 시각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 구조적 피해자입니다.” 너무나 많이 받아본 질문이었을까, 그의 대답은 빠르고 단호하게 되돌아왔다. “성산업 시장은 3자 구도입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개자로 구성되지요. 구매자가 있기에 성산업은 가능합니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성매매는 불법행위였으나, 단속은 없었습니다. 여성들만 처벌을 받아 왔을뿐 우리 사회는 성 구매자에게 너그러웠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구조적 피해자라는 입장을 그는 거침없이 계속 쏟아 놓았다. “그들은 착취의 대상입니다. 성산업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의 경우, 지각비가 1분에 만 원, 결근하면 하루 매상비가 빚이 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빚이 늘어납니다. 가출한 청소년이나 기혼 여성들의 경우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보니 빠져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창가는 성산업의 20%만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형 성매매 방식, 즉 노래방, 스포츠마사지, 단란주점, 다방, 룸살롱 등이 80%나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외형은 화려해 보이지만, 착취구조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 하고 악순환의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성매매 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차마 말로 묘사할 수 없지만 성매매 현장의 상황은 남성 구매자들이 더 잘 알겁니다. 우리 나라 남성의



의정부에서 성매매 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유영님 대표(왼쪽)

50%가 성 구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인간화 되고 사물화 되는 것이지요.” 유 대표의 생각은 인권과 도덕적 관점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성매매 근절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서구의 경우 우리 나라에 비해서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덜한 편입니다. 일례로 우리 사회는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에게는 이런 경우 헤어지고 새롭게 사귀 사람과의 관계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현상은 왜곡된 성문화의 한 지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이중성과 이중문화가 성산업을 고착화시키고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도덕적 관점의 틀을 넘어 사회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는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는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냉대하면서 성매매의 실질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성 구매자에게는 지나치게 너그럽습니다. 이

것은 범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산업 시장을 유지시켜 주는 인신매매에 대한 의식이 우리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총체적인 접근, 즉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환으로 성매매 근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대표하는 성문화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시장에서 건강한 성을 얻지 못 하는 성 구매자 역시 피해자라며 안쓰러워 했다.

###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환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묵인하는 분위기가 사회적 병폐의 공범이라고 다시 힘주어 말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매매 현황을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 여성은 150만~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5세~30세 여성의 1/3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성산업을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와 성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성매매 현상의 심각성이 좀 더 명료해지면서 그가 이렇게 성매매 근절에 열심인 이유가 궁금했다. “신앙적인 이유가 절대적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제가 갖고 있는 종교의 내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었으나,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주위를 기울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30대 중반까지는 여성 민우회에서 활동했고, 97년부터 ‘두레방’이라는 단체의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이 문제에 관심 갖는 단체나 개인들이 너무 없어

서 내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자,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성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하고 성을 파는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처벌되기를 그리고 보호법도 실제로 실행될 수 있기를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의식이 확장되어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따랐으면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최근의 ‘유영철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성매매 여성들의 실종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대응도 하지 않는다며 분개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보다도 우선 온갖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혹은 ‘자기가 하는 범법행위는 사회의 관행이요, 남이 하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는 식의 이중 잣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고 생명이 소중하다면, 성을 파는 여성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하지 않는가?

### 온갖 이중성을 극복해야

혹자는 이런 생각에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무분별한 이기심과 온갖 불법과 폭력의 난무, 잔혹한 일들



기지촌 여성들과 연관되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와 함께 한 전쟁반대 행사

로 인해 정의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슬픈 광경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현실 속에서 이성의 실현을 파악하고자 했던 헤겔조차도 세계사를 바로 “도살장”으로 묘사하지 않았던가! 성매매가 인간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묵인하는 태도는 바로 비합리적인 힘에 대한 순응과 다름 없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진리와 현실의 만남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불확실성을 불가능성으로 대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주 불확실하지만,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이들의 만남을 추구하는 시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는 바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정 속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강한 긍정과 이를 갈망하는 자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유영님 씨와 같은 사람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이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반성할 계기를 부여해 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황정옥)